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3
사랑 안에서와 빛 안에서의 행함

성경: 엡 5:2, 8, 요 8:12, 요일 4:8, 16-17, 1:5, 시 119:105, 130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4:16-17]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 119:105]: (눈) /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시 119: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I.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 엡 5:2.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 A.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레 1:3, 9, 요 8:29).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4:16-17).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로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다(출 29:18, 25, 고후 2:15).

[레 1:3] 만일 제물을 소 떼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레 1:9]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레 8:29] 모세는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물로 흔들어 바쳤다. 그것은 헌신을 위하여 바친 솟앙 중에서 모세의 몫이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요일 4:16-17]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¹⁷⁾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 29:18] 이렇게 그 솟앙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번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 곧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다.

[출 29:25]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태워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다.

[고후 2:15]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 B.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서, 그 결과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 엡 5:25.

[엡 5: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1.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엡 1:4.

[엡 1: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2.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기 위해 터를 잡는다. 이 사랑은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한 신성한 사랑이다 — 엡 3:17.

[엡 3: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3. 그리스도 자신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지식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엡 3:19.

[엡 3: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C.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種)이 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 요일 4:8, 16.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 D.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이 신성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 요일 4:8, 16, 1:3-6, 빌 3:10 상.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요일 1:3-6]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⁴⁾ 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⁵⁾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⁶⁾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 E.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 요일 4:19-21.

[요일 4:19-21]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²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뵈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²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 F.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두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매우 쉽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 G. 우리는 홍수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떠밀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신성한 사랑은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고후 5:14.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 H.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계명을 갖기 때문에 이 계명은 옛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이 계명은 거듭해서 새로운 빛으로 떠올라 밝게 비춤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신선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 요일 2:7-8, 3:11, 23, 비교 요 13:34.

[요일 2:7-8]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⁸⁾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일 3: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일 3:23]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 13:34]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1. 주님의 계명은 다만 명령이 아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영과 생명인 그분의 말씀이다 — 요 6:63.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공급해 주어 우리가 그 본질에 의해 그분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한다.

3.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 I.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다 — 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 상.

[요일 4:7-8]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15:12]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 15:17]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계 3: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유 12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애찬을 할 때에 암조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면서 자기만을 챙기는 목자이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며,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이며

1.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고전 8:1 하, 비교 고후 3:6).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전 8:1] 우리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 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을 정복하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 딤후 1:7.
 [딤후 1: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3.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다(요 13:34-35).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요삼 9).
 [요 13:34-35]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³⁵⁾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요삼 9 내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함으로 몸의 생활의 실행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 요일 3:16, 요 10:11, 17-18, 15:13, 엡 4:29-5:2, 고후 12:15, 롬 12:9-13.
 [요일 3:16]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0:17-18]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¹⁸⁾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요 15:13]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엡 4:29-32]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³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³¹⁾ 여러분은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³²⁾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엡 5: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²⁾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고후 12: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롬 12:9-13]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¹⁰⁾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¹¹⁾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¹²⁾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¹³⁾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5. 우리는 세상과 그 쾌락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 세상과 그 쾌락을 사랑하는 대신, 형제 사랑의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오락과 행복이 되어야 한다 — 요일 2:15-17, 마 16:25-26, 시 36:8-9, 비교 딤후 3:4.

[요일 2:15-17]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¹⁶⁾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마 16:25-26]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²⁶⁾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딤후 3:4] 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6. 교회생활에서 형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없이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된다. 가난한 성도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함께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르고 그들 안으로 주입된다 — 요일 3:17-18, 마 6:1-4, 롬 12:13, 고후 8:1-7.

[요일 3:17-18]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단아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습니까? ⁽¹⁸⁾ 어린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합시다.

[마 6:1-4]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²⁾ 그러므로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그대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³⁾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⁴⁾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롬 12:13]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고후 8:1-7] 형제님들,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²⁾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쳐 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은 풍성한 구제가 넘쳐 나도록 하였습니다. ⁽³⁾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껏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하였으며, ⁽⁴⁾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이 은혜와 교통에 참여하고자 우리에게 여러모로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⁵⁾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⁶⁾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권면하여, 이미 그가 시작해 놓은 일이니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은혜의 일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⁷⁾ 다만 여러분은 모든 것,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갈망과 우리에게서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넘쳐 나는 것같이, 이 은혜의 일도 넘쳐 나도록 하십시오.

J.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사랑에 의해 습관적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요일 4:16 -18, 고후 5:10, 14.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요일 4: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고후 5: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값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K.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또한 이 사랑 안에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분께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 요일 4:17-18, 비교 눅 12:46-47.
 [요일 4:17-18]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¹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눅 12:46-47]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⁴⁷⁾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는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L.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 하-13:8 상.
 [고전 12:31-13:8]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13:1)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²⁾ 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³⁾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⁵⁾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⁶⁾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⁷⁾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언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II.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엡 5:8.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A.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빛의 내적 비춤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 — 요일 1:5, 7, 창 1:18.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창 1:18]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B. 이사야서 2장 5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 안에서 행하라는 부름이다. 이 부름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사 2: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1.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신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도 하셨다.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 사 5:20.

[사 5:20]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의 빛 안에서 행함으로(요 8:12)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다(골 1:12).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고 다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고 이 왕국은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왕국과 대조된다(골 1:13, 행 26:18-19).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골 1:12-13]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¹³⁾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행 26:18-19]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¹⁹⁾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C.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영역이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그 영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는 말씀이다 — 계 2:7 상, 시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시 119:105] 1 (눈) /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시 119: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엡 5:26-27]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 8:13-14]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벼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¹⁴⁾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사 66: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사 66:5] 여호와와 말씀에 떠는 너희들아 /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어 /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 보아라.’ 하지만 /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D. 말씀이 우리의 체험에서 빛의 영역인지 아닌지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와 상태에 달려 있다 — 비교 요 5:39-40.

[요 5:39-40]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⁴⁰⁾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 — 사 57:15, 66:2, 눅 11:34-36.

[사 57:15] 높고 드높으신 분, / 영원 안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 또한 통회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여 / 겸허한 이의 영을 소생시키고 / 통회하는 이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사 66: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눅 11:34-36]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³⁵⁾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³⁶⁾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2. 주님의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모든 방이 열려야 한다 — 잠 20:27.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 E.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빛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해물들과 장애물들을 처리해야 한다(눅 8:12-15, 마 18:35).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해야 하며, 나누어진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시 119:2, 비교 렘 29:10-13, 24:7, 32:39).

[눅 8:12-15]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¹³⁾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¹⁴⁾ 씨가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철저히 숨 막혀,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는 것입니다. ⁽¹⁵⁾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 18:35]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시 119:2]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이들, /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은 복이 있다네.

[렘 29:10-13]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에 대해 정한 칠십 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¹¹⁾ 왜냐하면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생각으로서, 너희에게 좋은 결말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¹²⁾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겠다. ⁽¹³⁾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렘 24:7] 나는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 곧 내가 여호와임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렘 32:39] 나는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 F.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의 나타남이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다 — 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롬 9: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행 9:3-4]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추므로, ⁽⁴⁾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사 50:10-11]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며 / 그분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 어둠 속을 거닐어 /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 그런 이는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하고 /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¹¹⁾ 참으로, 불을 피우고 / 횃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모두 / 너희의 불빛 가운데로 / 너희가 불붙인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 바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것이다.

[민 6:25-26]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²⁶⁾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G. 주님께 빗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빗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빗 비춤을 원하고 받아들이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 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시 139:23-24]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²⁴⁾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빌 2:12-16]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¹³⁾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¹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¹⁵⁾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¹⁶⁾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하 12:14] 르호보암이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하 16:12] 아사 통치 제삼십구 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났다. 그의 병이 매우 심각하였는데, 그는 병에 걸려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대하 34:1-3] 요시야는 팔 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²⁾ 그는 여호와와 눈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았다. ⁽³⁾ 그는 통치 제팔 년에 아직 어린데도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십이 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상들과 조각한 우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일소하기 시작하였다.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 73:25]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눅 11:33-3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³⁴⁾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³⁵⁾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³⁶⁾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2. 빗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 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마 7:1-5]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²⁾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³⁾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⁴⁾ 보십시오, 그대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형제에게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⁵⁾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눅 6:36-37]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³⁷⁾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죄판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유죄판결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눅 6:41-42]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⁴²⁾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대의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멈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 — 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눅 10:38-42]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³⁹⁾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⁴⁰⁾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⁴¹⁾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⁴²⁾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 11:21-28]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²²⁾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²³⁾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²⁴⁾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²⁵⁾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²⁶⁾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²⁷⁾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²⁸⁾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사 40:31]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가겠고 /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8:15-17]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¹⁶⁾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 66:1-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하늘은 나의 보좌요 /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집이 어디 있겠으며 /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²⁾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굶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4.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이나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 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3-39, 17:1-8, 비교 출 33:11, 14.

[행 22:10]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에 관하여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 5:4-6]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그이 손을 들이밀자 / 내 속부분들이 그이를 간절히 바랐어요. (5)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리려 일어나니 / 내 손에서는 몰약이, / 내 손가락에서는 몰약즙이 / 문빛장 손잡이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6)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렸으나 / 내 사랑하는 이는 그만 몸을 돌려 가 버리고 말았네요. / 그이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었지요. / 그이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서 / 그이를 불렀건만—그이는 대답 없었어요.

[고후 10:3-5]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⁴⁾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⁵⁾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³⁾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민 16:1-7]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 ⁽²⁾ 모세와 맞서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회중의 인도자 이백오십 명도 함께하였는데, 이들은 총회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³⁾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치오. 온 회중이 각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여호와와 회중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오?” ⁽⁴⁾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⁵⁾ 그리고 나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려 주실 것이며,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⁶⁾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대 고라와 그대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⁷⁾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으십시오. 그대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이여, 여러분이야말로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민 16:33-39]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³⁴⁾ 그들의 비명에 그들 주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치며 “땅이 우리도 삼킬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³⁵⁾ 그때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친 이백오십 명을 태워 버렸다. ⁽³⁶⁾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³⁷⁾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불 속에서 향로들을 꺼내 오고 그 속의 불은 다른 곳에 흩어 버리게 하여라.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³⁸⁾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가져온 향로를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향로들은 여호와에게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표시가 될 것이다.” ⁽³⁹⁾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버린 사람들이 바친 그 놋 향로들을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었는데,

[민 17: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막대기를 거두되, 각 조상의 집안마다 하나씩 곧 그들 조상 집안에 따라 그 모든 인도자에게서 열두 개의 막대기를 거두어라. 너는 그 막대기 위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한다. ⁽³⁾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각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막대기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⁴⁾ 너는 회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판 앞에 그 막대기들을 놓아두어야 한다. ⁽⁵⁾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것 곧 나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⁶⁾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조상 집안에 따라 막대기를 각자 하나씩, 곧 열두 개의 막대기를 그에게 주었다. 아론의 막대기도 그 막대기들 가운데 있었다. ⁽⁷⁾ 모세는 그 막대기들을 증거막 안 곧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다. ⁽⁸⁾ 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었다. 심지어 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출 33:11] 여호와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출 33: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5.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빛 속에 살아야 한다 — 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사 2: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히 9: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시 119:105] ㅓ (눈) /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계 1: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름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H. 우리는 빛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에게 빛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사 50:10-11.

[사 50:10-11]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며 / 그분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 어둠 속을 거닐어 /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 그런 이는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하고 /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¹¹⁾ 참으로, 불을 피우고 / 햇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모두 / 너희의 불빛 가운데로 / 너희가 불붙인 햇불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 바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것이다.

1.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불에 의해서는 영적인 길에서 전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2.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빛으로 자신을 에워싼다면, 우리는 잠시 동안은 우리 자신의 불빛 안으로 들어가 행할는지 모르지만 결국 고통 가운데 누울 것이다 — 사 50:11 하.

[사 50:11] 참으로, 불을 피우고 / 햇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모두 / 너희의 불빛 가운데로 / 너희가 불붙인 햇불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 바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것이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자신의 빛으로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한다 — 요일 1:5, 요 8:12.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III.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생활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잠 4:18) 이르러야 한다. 그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마 13:43).

[잠 4: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마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IV. 결국 새 예루살렘 전체는 신성한 빛의 발산체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 발산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왕국 백성과 함께 한다 — 계 21:23, 22:5, 4:5, 마 5:14.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마 5: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